

특집

간경변증

간경변증이란 만성간염으로 인한 간세포의 파괴와 염증세포의 침윤외에 두꺼운 섬유질이 형성될 뿐 아니라 나머지 살아있는 간세포들이 재생하여 결절을 만들기 때문에 간의 정상적인 구조는 소실되고 간의 형태도 일그러지고 굳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간의 표면은 마치 자갈밭처럼 풀불통해지며 전반적으로 쪼그라들게 된다.

이러한 간경변증은 서구 여러 나라의 경우 알콜에 의한 소결절성 간경변이 많은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B형간염 바이러스의 만성적 감염에 의한 괴사후성 간경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경변의 원인으로서 B형간염 바이러스 이외에도 일부의 결핵약이나 혈압약, 변비약 등도 간경변증을 유발할 수 있고 Wilson 씨병 같은 선천성 대사질환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알콜이나 약물 등에 의해 간경변증이 생겼을 경우 투약이나 음주를 중단하더라도 간경변 이전의 정상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간염인 경우에는 간의 염증이 소멸되면 원래의 상태로 환원될 수 있지만 간경변증은 일단 흉터와 같은 섬유화가 생기기 때문에 형태학적으로는 원래대로의 정상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간경변증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피부에 화상을 심하게 입고 나면 흉터가 생겨 정상세포가 될 수 없듯이 간에도 흉터가 생겨 있는 상태이다. 실제로 만성활동성간염이라고 진단된 환자중에도 상당수는 이미 간경변증의 소견이 함께 있는 것을 간조직검사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간경변증의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B형간염 바이러스는 매우 생명력이 끈질겨서 웬만한 은도나 습도에서도 살아견디고

화학물질로도 잘 죽지 않는다. 영하 20에서도 15년간 지속할 수 있으며 실온에서 6개월간, 그리고 60에서는 4시간이나 유지된다. 그러나 뜨거운 열에는 견디지 못하여 100의 물에 10분만 끓으면 죽어 없어진다. 따라서 간염바이러스에 오염된 기구나 식기, 내의등은 끓임으로써 간단히 바이러스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손쉬운 예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구르타르알데하이드 희석액에는 파괴되기 때문에 시판되고 있는 이 용액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